







# 당의 구상을 받들어 대규모과일생산기지를 번듯하게 일떠세우자

## 고산과수농장현대화공사를 다그치고있는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 대담한 작전, 완강한 실천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고산과수농장현대화공사에 떨쳐나선 618건설돌격대원들이 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지향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수백정보의 토지정리, 수십km의 도로건설, 많은 과일나무심기와 살림집건설 등 전방적인 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쳐 1, 2단계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왔다. 그리하여 고산과수농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공사를 앞당겨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은 계기로 되였다. 공사장한복판에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하루빨리 꽃피우려는 돌격대원들의 결사의 각오와 억센 신념을 그대로 반영한 직관판들이 전시되어 그들의 가슴을 더욱

노력케 해주었다.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이러한 화선식정치사업은 이처럼 방대하였던 2단계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3단계공사에 진입할수 있게 한 위대한 무기였다.

돌격대원들끼리 지혜를 합치도록 하였다. 대중은 선생이었다. 혁신적인 안들이 솟아져나왔다. 일군들은 그 착상들이 웅대한 결실을 맺도록 적극 떠밀어 주었다.

건설기지를 꾸러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문제를 해결한것만 놓고보자. 과일나무심기대상생공정에 필요한 중기보이라같은것은 자체로 만들수도 없는메다가 돌격대원들속에는 보이라에 대한 파악이 있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듯 돌격대의 일군들과 건설자본들은 당이 안겨준 담력 과 배짱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똑같은 공격전을 벌려 전 반격공사과제수행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현대적으로 꾸러지는 고산과수농장을 찾는 사람들은 이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진면된 현실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2단계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어느날이었다.

매 아니게 내린 비는 돌격대원들의 진전에 뜻밖의 난관을 조성하였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 비까지 내리다나니 온 전투장이 진흙이나 다름없었다. 불도끼들과 자동차들이 동음을 멈추지 않으면 안되였다. 발목까지 빠지는 진창속에서 맥을 놓는 돌격대원들도 있었다.

하는 전투장에 나간 일군들은 푸앵트를 휘두르고 달구지를 끌면서 흙을 치러내었다. 그것은 진화의 나날에 돌격전의 맨 앞장에 선 인민군지휘관들의 불굴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감동된 돌격대원들이 흙을기름을 휘날리며 떨쳐나섰다.

물론 우에 제기하면 쉽게 해결될수도 있다. 그러나 우에서 대주지만을 기다리는것은 618건설돌격대의 투쟁기풍이 아니다. 문제를 어떻게 제기한 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갔다. 그들은 기술자들과 마주앉아 우를 쳐다보지 말고 직접 협력을 민어야 앞길이 열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방대한 공사를 우리 618건설돌격대에 맡겨주신 그 믿음에 실천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하면서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자체로 건설기지를 꾸린 결의를 다지였다. 그때 일군들은 과일나무심기대과 과일생산기지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기 위하여 돌격대원

들모두가 서로의 지혜를 합치도록 하였다. 대중은 선생이었다. 혁신적인 안들이 솟아져나왔다. 일군들은 그 착상들이 웅대한 결실을 맺도록 적극 떠밀어 주었다.

이렇듯 돌격대의 일군들과 건설자본들은 당이 안겨준 담력 과 배짱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똑같은 공격전을 벌려 전 반격공사과제수행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적구상대로 꾸러지는 고산과수농장을 찾는 사람들은 이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진면된 현실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현장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난관을 맞아와 뚫고나갈 각오밑에 일군들은 구체적인 작전을 세웠다.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오늘의 공격전에서 우리 일군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어 대중을 불러일으킨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일군의 절절한 목소리는 현장지휘부일군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공격전의 열정에 서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킬 결의를 다진 일군들은 그걸로 전투장들에 달려나갔다.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경제전통을 박멸시켜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합성남도려단과 강원도려단 등 모든 려단들의 전투장마다에서 전사기요를 비롯한 전투적인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현장에서 진행된 려단별작전물진시역 역시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더욱 분출시키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방대한 공사를 우리 618건설돌격대에 맡겨주신 그 믿음에 실천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하면서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자체로 건설기지를 꾸린 결의를 다지였다. 그때 일군들은 과일나무심기대과 과일생산기지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기 위하여 돌격대원

들모두가 서로의 지혜를 합치도록 하였다. 대중은 선생이었다. 혁신적인 안들이 솟아져나왔다. 일군들은 그 착상들이 웅대한 결실을 맺도록 적극 떠밀어 주었다.

이렇듯 돌격대의 일군들과 건설자본들은 당이 안겨준 담력 과 배짱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똑같은 공격전을 벌려 전 반격공사과제수행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적구상대로 꾸러지는 고산과수농장을 찾는 사람들은 이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진면된 현실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당적구상대로 꾸러지는 고산과수농장을 찾는 사람들은 이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진면된 현실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토지정리를 다그치고있는 평안남도려단 돌격대원들

## 줄기찬 공격전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담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미 아나라는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끝까지 뚫고나가야 합니다.》

618건설돌격대 각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 공사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경제전통을 박멸시켜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합성남도려단과 강원도려단 등 모든 려단들의 전투장마다에서 전사기요를 비롯한 전투적인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현장에서 진행된 려단별작전물진시역 역시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더욱 분출시키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방대한 공사를 우리 618건설돌격대에 맡겨주신 그 믿음에 실천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하면서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자체로 건설기지를 꾸린 결의를 다지였다. 그때 일군들은 과일나무심기대과 과일생산기지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기 위하여 돌격대원

들모두가 서로의 지혜를 합치도록 하였다. 대중은 선생이었다. 혁신적인 안들이 솟아져나왔다. 일군들은 그 착상들이 웅대한 결실을 맺도록 적극 떠밀어 주었다.

이렇듯 돌격대의 일군들과 건설자본들은 당이 안겨준 담력 과 배짱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똑같은 공격전을 벌려 전 반격공사과제수행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적구상대로 꾸러지는 고산과수농장을 찾는 사람들은 이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진면된 현실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토지정리에서 계속 혁신

한정남도려단에서 3단계 토지정리작업이 드세 공격전을 벌리며 현실 실적을 올리고있다.

려단에서는 2단계전투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3단계 토지정리를 다그쳐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통일 크게 일관을 벌리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앞장을 메고 들끓는 전투장들에 달려나와 대중의 심정에 불을 달아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며 그들을 위훈창조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려단사무부에서는 집체적지혜를 합쳐 공사를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인 방도들을 찾고 전투지휘를 기동성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불도끼를 비롯한 기계수단들의 정비와 기술관리를 잘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토지정리전투가 그 예시나 총공격전의 불길기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일군들은 집이 좋은 석회석을 확보하는데 선진적인 힘을 넣는 한편 자체의 기술력향상을 석회로건설에서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와 함께 석회화생산지에서 나오는 케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블로크생산지기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도 동시에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집이 좋은 석회석을 확보하는데 선진적인 힘을 넣는 한편 자체의 기술력향상을 석회로건설에서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와 함께 석회화생산지에서 나오는 케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블로크생산지기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도 동시에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집이 좋은 석회석을 확보하는데 선진적인 힘을 넣는 한편 자체의 기술력향상을 석회로건설에서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와 함께 석회화생산지에서 나오는 케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블로크생산지기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도 동시에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집이 좋은 석회석을 확보하는데 선진적인 힘을 넣는 한편 자체의 기술력향상을 석회로건설에서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와 함께 석회화생산지에서 나오는 케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블로크생산지기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도 동시에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집이 좋은 석회석을 확보하는데 선진적인 힘을 넣는 한편 자체의 기술력향상을 석회로건설에서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와 함께 석회화생산지에서 나오는 케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블로크생산지기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도 동시에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집이 좋은 석회석을 확보하는데 선진적인 힘을 넣는 한편 자체의 기술력향상을 석회로건설에서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와 함께 석회화생산지에서 나오는 케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블로크생산지기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도 동시에 벌리고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공원을 찾아 몽골 대통령특사일행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공원을 찾아 30일 대통령명의로 경의 표시를 드리는 등, 부패배양을 몽골 대통령특사일행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던 위대한 조선과 몽골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과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렸다.

특사는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과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렸다.

특사는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과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렸다.

특사는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영국국회 상하양원 의장들을 만났다

영국을 방문하고있는 최태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28일 국회청사에서 영국국회 상하양원 의장들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우리측에서 의장 일행과 영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영국-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제 정당의원단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이날 최태복의장은 영국의무성 부장 등을 만났다.

그는 김일성동지의 명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대국을 반드시 건설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는 김일성동지의 명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대국을 반드시 건설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는 김일성동지의 명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대국을 반드시 건설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는 김일성동지의 명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대국을 반드시 건설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 월남국방상이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을 만났다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비서인 풍 팡 타이국방상이 24일 국방성청사에서 이 나라를 방문한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사과와 월남국방성 부상 등 관계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국방상은 존경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밑에 조선의 근대와 인민이 사회주의조국보위와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월남의 당과 국가, 군대는 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가

성인들과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제 1부 국방성 부상 등 관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관계를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관계를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관계를

##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과 월남국방성대표단 회담 진행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과 월남국방성대표단의 회담이 24일 월남국방성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

성인들과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제 1부 국방성 부상 등 관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관계를

## 4월 중 지자기 현상

4월에 일기와 기라 지구 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들은 다음과 같다. 2일, 4일, 8일, 11일.

14일, 19일, 22일, 25일.

##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해외 동포 예술단들 도착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제1조선예술단

이 3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국제고려인

일련회예단이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혁신의 기상 내려친다

인민보안부사단 평양시인민보안국대대에서

고산과수농장을 현대적인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일떠세우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혁신의 기상을 높이 펼쳐가는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열정에 떠받들려 기와 새 물과 함께 잘 혼합되어 기와 형태에 쏟아진다. 얼마후 동중 한 소리를 내며 프레스가 기와를 찍어내자 잠깐사이로 수십장의 기와가 성형되어 쏟아져나온다. 현장속보판에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진다.

이 야외적지점으로 운반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드넓은 적지장에는 경이러도 하듯 여러가지 질 좋은 기와들이 쏟아진다. 적체함이 넘쳐나고 기와를 가득 싣고 살림집을 짓기 위하여는 자동차들을 보며 대대의 일군이 확신에 넘쳐 말한다.

성 의 있는 지원사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찾는 손님들은 이 려사의 집에 깃들어서는 불멸의 깃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 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이밖에 특사일행은 주체사상과 평양남새파학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를 참관하였다.

## 로씨야 련방이민국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아나톨리 푸즈네프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련방이민국대표단이 30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 고향집을 찾는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령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로씨야 련방이민국대표단 주체사상참관

이밖에 특사일행은 주체사상과 평양남새파학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를 참관하였다.

##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신민주주의에서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쳐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고있다.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초콜렛생산동조조합에서 앞장서서 세계의 요구에 맞게 일터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매일계획을 140%의 성과를 올리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신민주주의에서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쳐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고있다.

이밖에 특사일행은 주체사상과 평양남새파학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를 참관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신민주주의에서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쳐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고있다.

이밖에 특사일행은 주체사상과 평양남새파학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를 참관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신민주주의에서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쳐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고있다.

이밖에 특사일행은 주체사상과 평양남새파학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를 참관하였다.



